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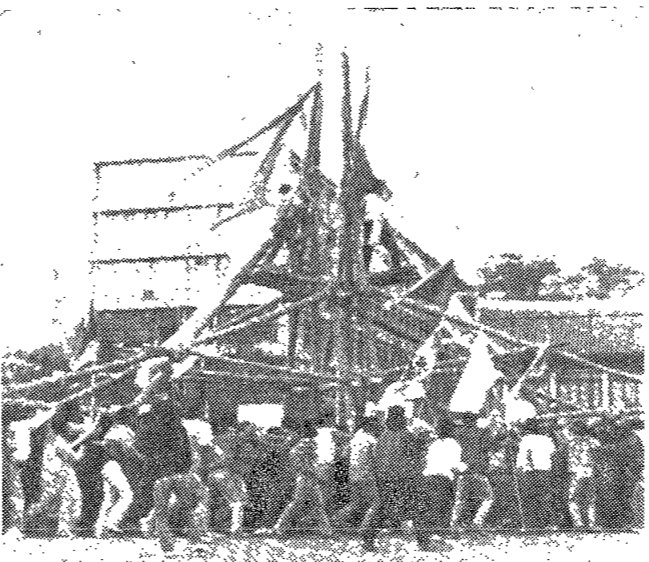


發行人 李徐李 容寬勝  
 編輯 李金甲 金中  
 主編 李金甲 金中  
 編輯 李金甲 金中

發行所 東國大學校 東大新聞社  
 서울캠퍼스 3街26  
 電話 8131~9  
 本館 延禧路 8577  
 경주캠퍼스 881  
 울진캠퍼스 881  
 영리 707  
 전화 2-0131~6  
 每週 火曜日發行

# 현실 풍자로 비판의식 高揚

지난달 31일 민족민주大東祭 폐막



▲민족민주大東祭가 지난달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피내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사진은 「피내대기」 촬영)

## 마당극등 다채롭게 진행

### 풍물놀이와 민요 등 다채롭게

【본지 기자 특약】 민족민주大東祭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피내 일원에서 4일간 열렸다. 이 기간 동안 마당극, 민요, 풍물놀이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진행되어, 참가자들은 높은 열정을 보였다. 특히, 풍물놀이는 전통적인 민중의 정서를 잘 표현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또한, 마당극은 현실 풍자를 통해 사회 비판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 韓國佛敎思想學術會의 盛了

## 密敎는 획일화된 인간意識 일깨워

【본지 기자 특약】 한국불교학술회가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불교학술계의 대동원으로서, 국내외 불교학자 100여 명이 참가했다. 회의는 13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14일과 15일 두일간 본회의를 진행했다. 본회의는 14일 오후 2시부터 15일 오후 12시까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불교학술계의 대동원으로서, 국내외 불교학자 100여 명이 참가했다. 회의는 13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14일과 15일 두일간 본회의를 진행했다. 본회의는 14일 오후 2시부터 15일 오후 12시까지 열렸다.

# 韓白民俗文化의 열화

## 국제학술회의 열화

【본지 기자 특약】 한국학술회의 열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국내외 학자 100여 명이 참가했다. 회의는 13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14일과 15일 두일간 본회의를 진행했다. 본회의는 14일 오후 2시부터 15일 오후 12시까지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국학술계의 대동원으로서, 국내외 학자 100여 명이 참가했다. 회의는 13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14일과 15일 두일간 본회의를 진행했다. 본회의는 14일 오후 2시부터 15일 오후 12시까지 열렸다.

# 선거법 시행령 미비로 총학 입학포도품목 연기

【본지 기자 특약】 선거법 시행령 미비로 총학 입학포도품목 연기가 결정되었다. 총학은 입학포도품목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선거법 시행령 미비로 인한 것이다. 총학은 입학포도품목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선거법 시행령 미비로 인한 것이다. 총학은 입학포도품목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선거법 시행령 미비로 인한 것이다.

# 反독재 反외세 투쟁선언 총학 「학생민중 주간」 설정

【본지 기자 특약】 총학은 「학생민중 주간」을 설정했다. 이는 반독재 반외세 투쟁선언을 위한 것이다. 총학은 「학생민중 주간」을 설정했다. 이는 반독재 반외세 투쟁선언을 위한 것이다. 총학은 「학생민중 주간」을 설정했다. 이는 반독재 반외세 투쟁선언을 위한 것이다.

# 즐거움정원 자체 조정돼

## 87학년도 慶州文理大분리 개편

【본지 기자 특약】 87학년도 慶州文理大분리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는 즐거움정원 자체 조정으로 인한 것이다. 87학년도 慶州文理大분리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는 즐거움정원 자체 조정으로 인한 것이다. 87학년도 慶州文理大분리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는 즐거움정원 자체 조정으로 인한 것이다.

# 학성의 날 기념식

【본지 기자 특약】 학성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는 학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학성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는 학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학성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는 학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 總學회보 편집장 이기호

【본지 기자 특약】 총학회보 편집장이 이기호로 변경되었다. 이는 총학회보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총학회보 편집장이 이기호로 변경되었다. 이는 총학회보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총학회보 편집장이 이기호로 변경되었다. 이는 총학회보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 綠住線의 變

【본지 기자 특약】 綠住線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綠住線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綠住線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綠住線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綠住線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는 綠住線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 민중의 날 기념식

【본지 기자 특약】 민중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는 민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민중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는 민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민중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는 민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 총학 파견

【본지 기자 특약】 총학 파견이 이루어졌다. 이는 총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총학 파견이 이루어졌다. 이는 총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총학 파견이 이루어졌다. 이는 총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 총학 파견

【본지 기자 특약】 총학 파견이 이루어졌다. 이는 총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총학 파견이 이루어졌다. 이는 총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총학 파견이 이루어졌다. 이는 총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 각 대학원 학생모집

1. 모교비전 및 학과  
 2. 시·시·시  
 3. 시·시·시  
 4. 시·시·시  
 5. 시·시·시  
 6. 시·시·시

1. 모교비전 및 학과  
 2. 시·시·시  
 3. 시·시·시  
 4. 시·시·시  
 5. 시·시·시  
 6. 시·시·시

1. 모교비전 및 학과  
 2. 시·시·시  
 3. 시·시·시  
 4. 시·시·시  
 5. 시·시·시  
 6. 시·시·시

1. 모교비전 및 학과  
 2. 시·시·시  
 3. 시·시·시  
 4. 시·시·시  
 5. 시·시·시  
 6. 시·시·시

1. 모교비전 및 학과  
 2. 시·시·시  
 3. 시·시·시  
 4. 시·시·시  
 5. 시·시·시  
 6. 시·시·시

1. 모교비전 및 학과  
 2. 시·시·시  
 3. 시·시·시  
 4. 시·시·시  
 5. 시·시·시  
 6. 시·시·시

# 기타 자재학사의 행한 대학원 편입생 모집

1. 모교비전 및 학과  
 2. 시·시·시  
 3. 시·시·시  
 4. 시·시·시  
 5. 시·시·시  
 6. 시·시·시



# 한국의 경제 현실

한국의 경제 현실에 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급속히 발전한 한국의 경제 현실은 많은 사람들의 눈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 발전의 배경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 현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산업 구조의 변화와 성장, 다른 하나는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경제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 한국사회기본모순은 勞·資모순

한국사회의 기본모순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모순이다. 이 모순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기본모순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모순이다. 이 모순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상훈

이제 한국사회의 기본모순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모순이다. 이 모순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기본모순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모순이다. 이 모순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주요모순 해결과정이 변혁단계

주요모순 해결과정이 변혁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단계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넘어서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모순 해결과정이 변혁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단계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넘어서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모순은 계급투쟁에 의해 발생

모순은 계급투쟁에 의해 발생한다. 이 투쟁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순은 계급투쟁에 의해 발생한다. 이 투쟁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신식민지적 경제구조에 기반을 둔 한국사회는 '국·독·자'를 물적 토대로 대판독점자본을 포함하며 이는 새로운 국가권력 代置를 통해 극복된다

신식민지적 경제구조에 기반을 둔 한국사회는 '국·독·자'를 물적 토대로 대판독점자본을 포함하며 이는 새로운 국가권력 代置를 통해 극복된다. 이 구조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구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식민지적 경제구조에 기반을 둔 한국사회는 '국·독·자'를 물적 토대로 대판독점자본을 포함하며 이는 새로운 국가권력 代置를 통해 극복된다. 이 구조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구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 ◇ 관심사 차례
1. 돌아오는 날 (이들의 개별생활과 그 의미)
  2. 우리들의 삶 (주변부 사생활의 현실과 비관적 사회구성원들의 생활)
  3. 기존사회구성원들의 비판과 한국사회구성원들의 생활
  4. 모순 (한국사회 구성체의 모순)
  5. 계급투쟁
  6. 결론 (한국사회 구성체의 모순과 그 극복)

### 鹿野苑

변화와 안정

변화와 안정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Rikyo-en의 다양한 제품들은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 롯데인삼맛껌에는 인삼 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인삼의 맛을 껌으로 즐긴다!

인삼 엑기스를 넣어 만든 인삼맛껌은 대한민국 전매청 허가품입니다. 인삼이 함유된 인삼맛껌을 씹으세요. 인삼 엑기스의 씹새한 맛이 입안이 개운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롯데인삼맛껌  
화진소재(사)가  
100원

롯데제과





지난 10월 18일에 있었던 노벨문학상 수여가 검은대륙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출신 윌레 소잉카에게 돌아감으로써 이제 아프리카대륙은 미개한 곳이라던가 혹은 「아프리카에도 문화가 있는 나라이니」의 시시한 얘기를 완전히 불쾌한 셈이 되었다. 서구적 문명(諸國)을 거쳐 온 나라에서 여러명의 노벨상을 타본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나온 수상자는 달리 소잉카 수상의 의미는 그 자신의 소감처럼 비단 나이지리아 문명뿐 아니라 전 아프리카대륙의 문화를 세계적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그들은 1934년 「검은학생(L'Étudiant Noir)」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작품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활동은 2차대전후로 1947년에 창간된 아프리카의 존재(Presence Africaine)라는 잡지를 통해서였다.

- ……○……윌레 소잉카는 어떤 위인인가. 어떤 사람이길……○
- ……○……검은대륙의 불모지 문화토위에 영혼이 시……○
- ……○……물지 않을 꽃을 피울 수 있었는가. 문학을 비롯……○
- ……○……한 문화를 아직도 자기네 자로 재려는 서구……○
- ……○……의 문화유물주의가 편애한 이때 아프리카 작가……○
- ……○……의 노벨문학상 수상소식은 한국을 비롯한 제3……○
- ……○……세계 문학계에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작가의 역할을 사회관……○
- ……○……습과 경험세계를 기록하는데 있다고 역설하는……○
- ……○……소잉카의 작품전반에 흐르는 세계관을 알아보……○
- ……○……그의 86노벨문학상 수상을 통해본 아프리카……○
- ……○……카문학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해보고자한다.……○
- ……○…… <편집자주>……○

로운 역사를 장식한 새로운 순수문학의 장을 열어야 한 다는 신념에 불타 있던 때 이기도 했다.

이렇듯 멀지 않은 과거를 그런 작품들은 주로 서구적 신문물과 가치관이 전통과 대치상태를 이루며 그 사이에 서 사람들이 겪어오라는 과도기적 갈등을 그리고 있다.

우간다의 시인 Oouf P'Botek의 「라비노의 노래」(Song of Lawino)는 서구문명

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네그리투드」의 과거 거미화에 「대해서 호랑이는 호랑이성을 선언하지 않는다. 그냥 뛰어 오를 뿐이다.」 라는 말로 응수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이후 조국 나이지리아가 독립후 처한 사회및 정치상황에 심망하고 사회 내부에 잠재해 있는 여러 문제들, 부패, 공해, 오염, 교통사고등을 작품을 통해 파헤치는 한편 실제 정치문제에 연루되어 두번이나 구속당하기도 하였다. 그의 이러한 행동들은, 더 나은 사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 黄土言語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네들의 아픔을 단지 속삭임으로 사치버리는 어두운 삶을 자신이 한 번 기자로 대신 탐정 표현해 냈다는데 우선 후련하고 만족스러웠다』 상기되어 흥조순 두손을 얼굴로 가져갔다.

『그러나, 대학내에서 행 사때마다 벌어지는 놀이, 마담극이, 흥미위주에 그 치거나 예술성이 빈약한 단 순 세태종자로 다른 목적을 위한 인연동행(?)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아쉽고 안타까운 정도 없지 않다고 극중에서 흥 조순을 지행하는 장면에서 관중들의 폭소는 침묵으로 일관되어 조순에야하는 장면이 피어오르며 피지 않았으며 마담극의 참의미를 잃어 버리는 학우들의 잘못된 관람시각에 대해 한숨을 쉰다.』

『모든 안의 근원은 모든 다는 無에서 오며 無에서 오면 모든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 이어 지는 말에 어느새 졸업이 있을 것이다. 『내가 아무 리 발버둥쳐가며 착각오정 의를 살리고도 세상을 정을 모르는 데 어떻게 분



<마담극 主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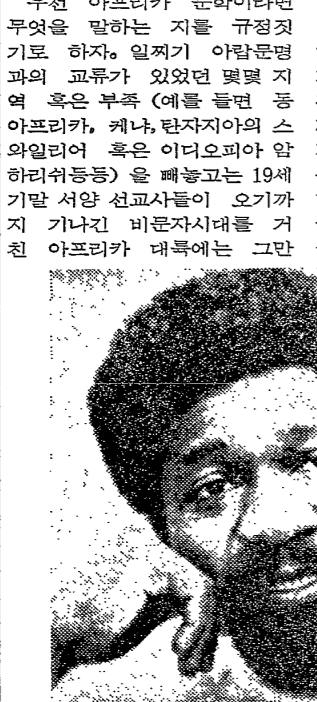
『이 세상에는 황금으로 단 단사를 해결하려는 흥, 생산과 분배의 자리에서 제 의된 흥들이 너무 많습니 다』

지난 29일 불상 앞에서 흥 여학생회 주최로 벌어진 한

### 아픔을 속삭임으로 사치버리는 삶을 흥의 맥락으로 호소했지요.

마담극 「어머니 해맑은 웃 음의 그늘 아래」에서 막 벌인 사정감을 받아 열연 했던 백은은 기자와 자리 를 함께 하자 스스로를 말문을 먼저 열어 자칫 질 문과 대답이라는 딱딱한 태 두리로 일관되기 쉬운 분위 기를 따뜻하게 한다.

『꿈에 신배권유로 꿈을 달고 연합할 때는 파인 내 가 해낼 수 있을지라도 그 것이 아니라 몇몇이 포기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들을 먼저 사살합니다』며 자신의 내성적 성격을 숨 깬다. 이렇듯 흥의 모습은 또 다른 마담극의 연속이유를 또 각과 반성에 대해 묻자,



▲소잉카의 작품전반에 나타난 그의 사회적 의의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 검은大陸에 핀 「꽃중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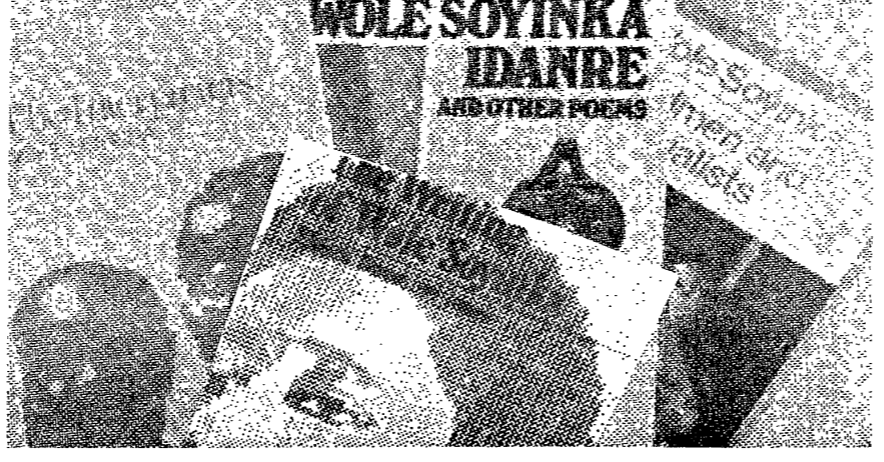
다. 그 집지는 그들의 대변 시 역할을 했으며 1950년대 후반 그 운동의 의미가 사라 지 버린 후 오늘날에 이르러가 지 아프리카 문화를 소개하 는 잡지로 계속되어 오고 있 다. 작품은 대개 詩로서 그 들은 떠나오 그와 아프리카 를 유년시절의 순수함과 더

소리가 높았을 때 특히 남아 아프리카의 E. Mphahlele가 그 대 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네 그리투드」가 식민지 문화에의 동화(Assimilation)를 전제 로한 것이며 인종차별적이고, 그 다음 생고르의 「아인시절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단적으로 말해주듯 아프리카의 무 조적인 전통과 과거의 집 작들의 파장된 묘사들을 지적했다.

이런 비판의 소리들은 1957년 이바당 대학의 윌리 바이어(Ulli Beier) 교수와 독일의 아프리카 문학전문가 얀아인조안(Jahnheinz Jahn)에 의해 창간된 영연권 문 학의 요망인 「Blach Orpheus」를 통해 세상에 발표되었 다. 불어권의 「Presence Africaine」에 맞서는 「Black Or-

pheus」의 근본취지는 1958년 가나의 아프리카에서 열린 아프리카 민족회의에서 그 와게 응우루마(Kwame Nkrumah)에 의해 제창된 「African Personality」와 맥을 같이 하여 아프리카대륙내의 연 어장벽을 허물고 광과문학을 장려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네그리투드」의 과거 찬양의 경향은 아프리카 문화 의 한층 높았을 뿐이라고 규정 지었으며 「네그리투드」 정신 전제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불어권 지역에만 국한되었 던 「네그리투드」와는 달리 그 들은 비슷한 과거와 문화의 산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프 리카인 모두가 뿌리를 찾아 「근원으로 돌아가는」 기



### 人間愛 바탕으로 사회적 도전의식 표현해내 검은 대륙의 교훈이 제3세계 문학의 「은둔」 잠깨워

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제는 소설에도 채택되어 가나의 카마라야에(Camara laye), 캄 베르의 몽고 베티(Mongo Betti) 등을 대표로 들 수 있다. 불어권 문단은 60년대이 후 이러한 주제를 탈피하여 주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에서 벗어나는 갈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독립후의 사회문 제나 정치상황에 대한 좌절 및 조소등을 주로 그리고 있 다.

영연권에서 본격적인 문화 활동이 시작된 것은 불어권 보다 약20여년 늦은 1950년대 후반으로 식민지기가 종식을 고하러던 무렵이었다. 영연권의 식자층 사이에서는 「네그 리투드」 운동에 대한 비판의

를 빼앗긴다는 얘기가, 아프리카에는 문자로 기록 되어 전해진 역사가 거의 없 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러한 이유로 그들의 역사는 제멋대로 왜곡되고 비하되었 던 것이다. 그로 아프리카 작 가들에게 과거를 어떻게든 규정 짓고 나아가야 할 숙제였던 바 소잉카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1960년 나이지리아독 립을 기념하는 연극으로 그 가 발표한 「숲속의 춤(A Dance in the Forest)」에서 그 는 자신의 역사관을 밝히고 있다. 즉 전쟁, 약탈, 굶주림 등은 현재에 뿐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으니 과거가 현재보다 더 아담하다는 것도 추 할 것도 없다. 과거는 있는 그

를 깊고 풍부한 구전문학의 유산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그 이후 식민지 주국의 언어로 교육받은 세 대들이 창조해낸 문화이다. 이들중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영연권 문학과 불어권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식민지언어에서는 서로 상 이한 언어정책이 실시되었던 바 영어가 의사소통의 수단 으로 미온적인 보급효과를 본 때 반해 불어식민지에서는 훨씬 강력하고 적극적인 언어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한 언어를 통한 철저한 동화(Assimilation) 정책의 결과 수많은 엘리트들이 배출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할하게도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문화적 저항운동이며 본격적 문학운동인 Negritude는 바로 이 파리에 유화종이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 1930년대초 불어권 식민지 에서 은 L. 생고르(Seneegal), A. 세제르(Martinique) 등에 의해 시작된 이 문학운동은 식 민지 동화정책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고 심지어는 멸시와 조소의 대상이 되어버린 아프리카 자신들의 문화와 과거를 되찾고, 그 가치가 서구 문명과 동등함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생고르는 이 운동의 중심이론가로서 에메세베르가 1939년에 발표한 「귀환수첩」(Cahier d'un retour au pays natal)에서 처음 사용한 「네

25일 산뜻한 기분!

깨끗한 女人은 언제나 깨끗합니다.

“하루내내 깨끗한 아침기분 팬티라이너로 느껴보세요!”

후리담 팬티라이너는 생리기간이 아닌 보통날 팬티를 깨끗하게 해주는 팬티청결대입니다.

생리가 아닌 때라도 여성들에게는 늘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요. 그래서 아침에 깨끗한 팬티가 오후야 되면 벌써 머리까지도 맑은 기분을 줍니다. 후리담 팬티라이너를 팬티안쪽에 살짝 붙여 놓으세요. 사계절상도 하루내내 깨끗한 아침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후의 그 상쾌한 느낌, 후리담 팬티라이너!

**후리담 팬티라이너의 특징**

- 프리카가 최고일! 약용부미 없으며 소피 도 나지 않습니다.
- 부드러운 유산염으로 다자언어이 자연스 럽게 맞습니다.
- 특별 세척방법으로 개발포장으로 사용이 간 편합니다.

**후리담 팬티라이너의 용도**

- 질염비염을 흡수해 냄새를 깨끗하게 해 줍니다.
- 배변이 피임제 사용시, 분비물 처리에 좋 습니다.
- 여행중 팬티라이너가 없으면, 생리기간중 하복부에 편리합니다.

후리담 팬티라이너

### 東國漫評

이름도 모르는 한 여학생 과의 관계로써 그는 대학 교수들의 위치에 찬 도덕성 에 조소를 걸었다. 이렇 듯 젊은 세대가 부패하는 사회적 피상적인 도덕을 내 세우며 위선과 비리에 가득 한 구세대들의 사회이다. 그 런 현실에 분노하는 젊은 현실 자들이 가파른 길은 현실 적을 아니며 좌절만인 듯 싶 다. 소잉카가 추구하는 인간 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된 사회와 길은 아직 멀기만하 다. 그러기에 그의 구원의 길은 더 절실하고 절절한 지도 모른다.

송미루  
<외대강사·소악리학과>

◇『아니넨 글썽에...』

「대학에서 대학원」은 대학원생의 생활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학원생의 생활은 대학원생의 생활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非협조·不参加·無능력의 三重奏



△대학총회 준비 위원회 회의 모습이다.

## 學術심포지움 중심인 '고무적' 결집된 역량 부족 드러나기도

대학총회 준비위원회는 10월 27일(수) 오후 2시 서울대 대강당에서 '1986년 대학총회 준비위원회 결집된 역량 부족'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 합동대생동맹수업취부결의

## 학교측 징계방침의 항의해



합동대생동맹수업취부결의 학교측 징계방침의 항의해

합동대생동맹수업취부결의 학교측 징계방침의 항의해. 학교측 징계방침의 항의해. 학교측 징계방침의 항의해.

## 의 의침

의 의침. 의 의침. 의 의침. 의 의침. 의 의침. 의 의침. 의 의침. 의 의침. 의 의침. 의 의침.

## 학부 연구부 연구부 연구부

학부 연구부 연구부 연구부. 학부 연구부 연구부 연구부. 학부 연구부 연구부 연구부.

## 본사정리본사정리본사정리

본사정리본사정리본사정리. 본사정리본사정리본사정리. 본사정리본사정리본사정리.

## 大學축제의 본질 올바르게 인식돼야

大學축제의 본질 올바르게 인식돼야. 大學축제의 본질 올바르게 인식돼야. 大學축제의 본질 올바르게 인식돼야.

### 생리식염수로 콘택트렌즈를 세척하든 시대는 지났습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눈(眼)!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시는 분에게는 렌즈의 손질만큼 조심스럽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렌즈의 손질을 잘 함으로써 눈의 염증, 각막염, 각막혼탁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렌즈를 편안히 착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별 생각없이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콘택트렌즈 전문용액 뷰렌스로 바꿔주세요. 오른쪽의 도표를 보시면 뷰렌스를 쓰셔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콘택트렌즈 전문용액 뷰렌스는 눈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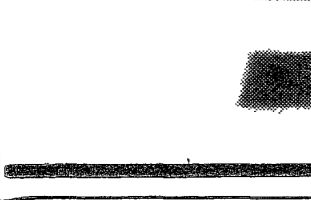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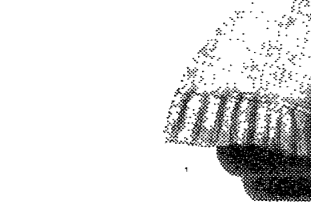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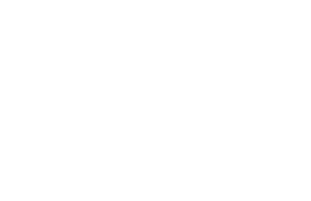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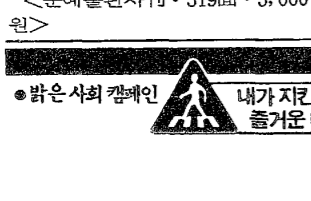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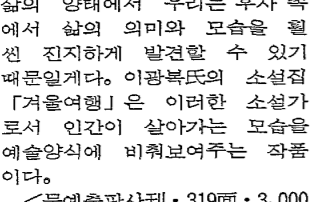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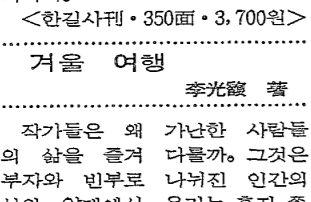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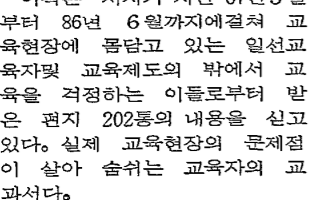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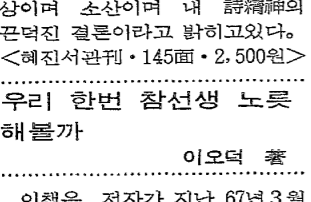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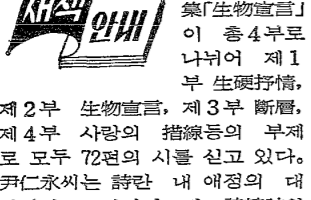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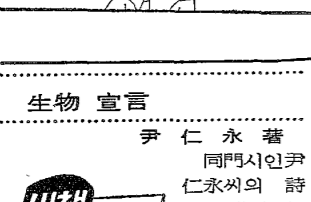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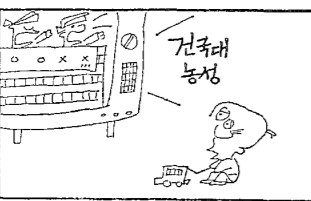
내	용	뷰렌스	생리식염수	비교
치	방	FDA가 승인한 멸균액	생리식염수 0.9%	구이 각국에서는 콘택트렌즈 전문용액만 사용한다.
염	소	필요없음	필요 있음	콘택트렌즈는 매일 소독해야 합니다. 뷰렌스는 뷰렌스에 4시간 이상 담가 두면 염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콘택트렌즈에 대한 작용	소독작용	매우 우수	없음	생리식염수는 0.9%의 소금농도가 때문에 소독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사용하면 공기 중의 세균이 들어갈 세균번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보존작용	매우 우수	없음	콘택트렌즈는 높은 염수농도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생리식염수는 염수농도를 유지시켜주지 못하므로 렌즈를 착용할 때 염수에 닿아 두어야 합니다. 뷰렌스는 세균과 간질되지 않는 깨끗한 용액입니다.
	세척작용	매우 우수	없음	생리식염수는 광기와 질소산염산과 혼합되어 산성화 되어 있습니다.
PH		7.0	7.0~4.5	생리식염수는 광기와 질소산염산과 혼합되어 산성화 되어 있습니다.
안	충	매우 우수	없음	뷰렌스는 눈의 염색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리식염수는 염색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뷰렌스는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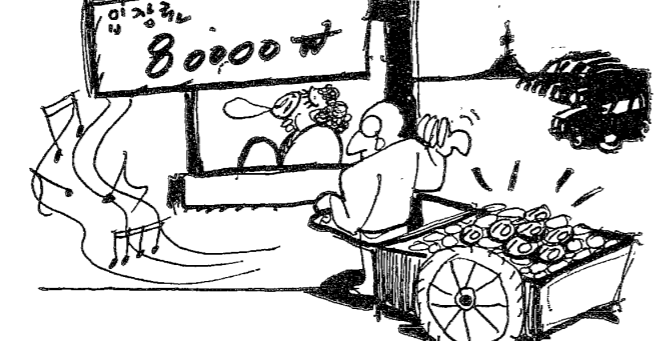
표준소매가격 : 500ml → 2,200원

### 여로니코

오 황 <21>



### 8만원의 입장권



옛 선비들이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경고한 말이 있다. 「不假債 假不均」 「백성들은 가난한 것을 한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고르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는 말이다. 물론 사람의 삶은 동물들의 삶처럼 일률적일 수가 없고, 삼그 자체를 기적으로 짚어내듯 그렇게 균등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러나 균등해야 할 것들은 너무나 많다.

기회의 균등, 자유의 균등, 권

### 초심 비판

리의 균등, 그것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면 우리들은 아름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소속의 수준이나 소비의 수준은 사람의 능력과 기용되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차이를 인정해야겠지만, 기회의 균등이나 권리의 균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유와 소득과 소비가 극심한 격차를 자꾸 벌

### 하나의 암시이자 복선인 이 가을 내음에

“사랑묘약이 득이라도 한번 마시고 싶어,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이런 鑑賞을 두들겨 깨우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이 실연의 결과로 글리신, 트립토판 등의 아미노산과 알부민 등의 단백질이 Ehrlich 용액과 반응하여 각각 그 색깔의 변화를 나타내게 시작할 것이다. 그때 그건 트립토판이었어. 트립토판이, 그 색깔이란 휘발성이 약한 포도당에 한 방울의 휘발성이 더한 색깔이 아니냐, 사파이어를 녹이고 붉은 장미꽃잎을 담은 술이라고나 할까? 그건 단순한 자주색도 보라색도 아니었다. 아아 여름내내 불타올랐던 정열에 한번쯤은 차가운 憂愁를 더할 수 있는 색. 색

### 『OO!』 자넌 김준과 몇 명 더 모여서 Ehrlich Test를 하게

다른 실험은 우리가 할테니! 병 안 눈으로 그 곳을 돌아다 보며 건설적으로 실험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문득 참박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열림대며 제갈길로만 가는 화물기차의 녹슨 차체, 여름과는 달리 약간은 울퉁퉁한 플라타너스의 잎에는 황금분말의 비를 정도로 하이라이트만 햇살이 비치는 것. 그리고 지나가는 뚝 남자들의 얼굴을 木皮처럼 까칠하게 한다거나 갑자기 뿔가 정리하고 또 새로이 시작해야 할 게 있을지도 모르잖는 식의 가을이

력보다는 빈부의 격차를 점점 실감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이 눈에 띄고 있다.

수익원짜리 빌라 하우스와 펜션 아파트 기전민원을 훑아하는 골프 회원권, 수익원권을 들어서 지어놓은 사우나 전용 빌딩, 수십억원을 들여서 만든 초대형 갈비집을 초호화 소비할락 업소는 그동안 하도 많이 지적됐으니 두번 다시 언급하기조차 지겨운 노릇이지만 사회의 특이요, 민중의 계도자요, 격려의 피수꾼이요, 민족문화의 장막자로 자처하는 신문사, 방송사들조차 「있는자」들의 편에서 「돈자랑놀이」에 앞장서고 있는것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연필칭 국제문화교류요, 문화행사라고 외국의 유명한 음악가를 초청하고, 발레단을 모셔오고, 오페라단을 업어오는 것까지는 그럴다치고, 관람권 한장에 <8만원>까지 받는것은 어찌구무가 없다.

1년내내 뼈째지게 농사지어서 쌀 한가마를 팔아도 8만원을 받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눈요기 한번 하는데 8만원의 입장료를 받는 장사꾼 잘된다는 것은 무엇이 의미하고 있는가?

한달 내내 허리가 휘도록 리 해도 겨우 10여만원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수주룩한 세상에선 신문사 방송사는 즉각 8만원짜리 입장권을 팔아야하는 그런 값비싼 외국의 예술가들을 초청해야만 예술과 문화가 발전한다

서울 광화문에 세종문화회관은 지은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이 세종문화회관은 2만원짜리 3만원짜리, 4만원짜리, 8만원짜리라는 엄청난 입장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만 출몰할 수 있는 안 된다. 그동안 들은 어린이들을

### 각 계층간의 고른 문화행사로 국민일체감 조성해야

### 문화행사 빙자한 「돈자랑놀이」에 희비극 엮갈려

리 돈많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풍리 해도 겨우 10여만원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수주룩한 세상에선 신문사 방송사는 즉각 8만원짜리 입장권을 팔아야하는 그런 값비싼 외국의 예술가들을 초청해야만 예술과 문화가 발전한다

서울 광화문에 세종문화회관은 지은 돈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이 세종문화회관은 2만원짜리 3만원짜리, 4만원짜리, 8만원짜리라는 엄청난 입장료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만 출몰할 수 있는 안 된다. 그동안 들은 어린이들을

### 문화행사를 빙자해서 가난한 이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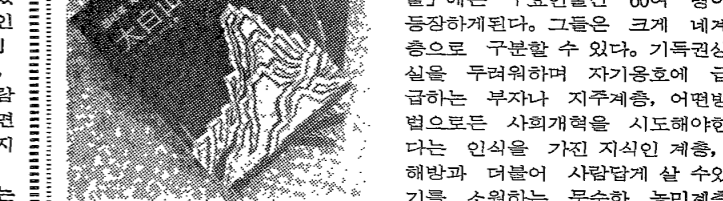
문화행사를 빙자해서 가난한 이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화행사를 빙자해서 가난한 이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화행사를 빙자해서 가난한 이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민족적 삶의 생동감 입체화 시도

### 조정래 작 「太白山脈」



한다. 이것은 민족사의 총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현명한 선택이고 바람직한 대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1부 「한의 모닥불」에는 주요인물만 60여 명이 등장하게 된다. 그들은 크게 네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득권층임을 두려워하며 자기유호에 급급하는 부자나 지주계층, 어떤방법으로든 사회개혁을 시도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진 지식인 계층, 해방과 더불어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하는 무수한 농민계층을 공산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산주의자계층이 그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노선이 각기 다른 인물들을 등장시켜 개인적 전사와 그들의 사상을 소상하게 밝힌 그 시대의 전형적 인물로서 그들이 차지하는 역사적 비중을 정밀하게 점검한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의 사상이나 인물의 편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거리를 엄정하게 유지하여 사상이나 인물에 대한 설부를 판단을 유보한다. 작가가 유지하고 있는 그 엄정한 객관적 거리가 바로 「태백산맥」의 새로움이며 생명력이며 탁월성인 것이다.

### 조정의 「태백산맥」은 전라남도 빈곤이라는 압축된 공간과 여순반란사건이라는 특정한 시간을

시발점으로 하여 한국근대사의 총체와 양상을 복합적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무시하고 제시하는 대역 서사문학이다. 「태백산맥」은 8.15와 함께 시작된 민족분단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민족분단

단은 최우이메를로기의 갈등을 낳고, 최우이메를로기의 갈등은 여순반란사건을 낳게 된다. 작가는 그런 시대를 선택함으로써 민족분단사를 엮어내려는 투기적인 질서를 자정하고 나선 셈이다.

분단된 민족의 삶을 그리고자 하는 작가의 욕구는 그 욕구만큼의 역사적 질문앞에서 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역사적 질문, 그것은 객관적 질문인 것이다. 객관적 질문에는 필연적으로 객관적 답이 따라야한다. 그 역사적 객관적 답을 찾아내려면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족이라는 것이 단순개념이 아니라 복합개념이며 정치상충 또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동원하여 주인공들의 입체화를 시도

### 「관리장성」공연

오는 6일까지 바탕골소극장서 극단 현대극장에서는 막스프리 시작 「관리장성」을 바탕골소극장 무대에서 오는 6일까지 공연된다. 공연시간은 하오 4시, 7시, 주말 하오 2시, 5시 하루 2회공연.

### 「위기의여자」연장공연

오는 30일까지 산골극장서 극단 산골극장의 「위기의 여자」 작품이 11월 한달동안 다시 연공공연에 들어간다. 공연시간은 하오 3시, 7시, 주말 하오 2시, 5시 하루 2회공연. 는

이다. 심지어는 악성투머달게 「경찰들이 아닌 다른 소속사 합들이 투입됐다」고하는 소문마저 떠돌고 있다. 합으로 안락까운 일이다. 믿자니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안락자니 무언가 찜찜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언비어(?)를 접하면 스스로 가장사체해서 판단하게 된다. 심지어는 악성투머달게 「경찰들이 아닌 다른 소속사 합들이 투입됐다」고하는 소문마저 떠돌고 있다. 합으로 안락까운 일이다. 믿자니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안락자니 무언가 찜찜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언비어(?)를 접하면 스스로 가장사체해서 판단하게 된다.

### 遺言悲語

된다고 한다. 대강 「헬기와 지상에서 유언비어는 대개의 경우 민족의 눈을 가리려는 가릴수, 입을 막으면 막을수록 참관하게 된다. ▲소위 建大사건이유도 다시 UB통신이 그 기승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한다. 建大에서 학생 20여명이 죽었다는 헬기에서는 소화탄을 쏟아 많은 학생이 심한 화상을 입었다는 소문들이 그것

### 기술로 세계로 미래로 KIA MOTORS

1987년을 기다립니다

기후의 비전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줄기찬 도전과 집념으로 기계공업에 쏟아온 프로세서나리즘의 전통을 쌓아오면서 아름다운 미래, 편리한 인간생활을 위해 펼쳐온 起亞의 원대한 꿈이

1987년—드디어 그 베일을 벗고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세계시장을 향해서, 편리한 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서... 젊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일터를 위해서...

起亞産業 KIA MOTORS

● 밝은 사회 캠페인

내가 지킨 거리질서, 즐거운 나들이